



융합연구소식지
50호
2020. 7. 9.

Transdisciplinary Research Newsletter

융합연구소식지 | 제 50호 | 2020년 7월 9일 |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교수연구동(K3) 지식콘텐츠연구소 209호 | 발행인 노영희 | 발행처 융합연구총괄센터

융합 EVENT

□ 2020 융합연구 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예정

융합연구총괄센터(센터장 건국대 노영희 교수)는 오는 7월 23일 온라인 방송 포맷으로 2020 융합연구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문사회기반 학제 간 융합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제1세션은 성결대 라휘문 교수와 건국대 박창규 교수의 주제발표로 진행되며 토론은 좌장으로 제 15-16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교수, 토론자로는 최희운 KISTI 원장, 충청남도 경무부지사를 역임한 단국대학교 허승욱 교수, UNIST 도시환경공학부 조재원 교수, 경기연구원의 박충훈 선임연구위원이 융합연구의 대규모 공동연구와 브랜드 사업화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본 행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일 실시간 방송되며 추후 해당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노영희 센터장은 이제 기술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사용자 본위의 기술 활용에 초점을 두고 가치와 편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기술과 인문·예술분야의 융합과 파생을 통해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융합연구의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융합 연구의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본 심포지엄에서 학제 간의 정보혁신적인 융합과 기업, 대학, 민간과 공공 등 다양한 영역 간 융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융합 ISSUE & TREND

□ 고려대 통합전염학 융합연구팀 연구결과물 학술 논문 게재

고려대학교 통합전염학융합연구팀(연구책임자: 박길성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은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MERS 사태를 재조명함으로써 당시 사태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재난을 둘러싼 사회 내 움직임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에 주목해 왔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한국사회] (KCI등재) 21권 1호를 특별호, "위험의 사회적 추적과 진단"으로 구성하여 총 3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번 3편의 논문들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결과물 중 MERS 백신 발간 과정과 구성, 트위터(twitter) 상에서의 사람들 반응, 그리고 MERS를 둘러싼 정보 전달 경로의 특징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논문제목은 "넘치는 백신, 부족한 백신: 위험의 사회적 추적으로서 메르스 백신을 진단한다." "트위터로 본 메르스(MERS)의 사회적 영향: 대응 시기와 집단에 따른 목소리의 다양성." 그리고 "연속된 감염경로, 단절된 정보경로: 캐나다 사스(SARS) 사태와 한국 메르스(MERS) 사태의 교훈."이다.

이번 연구결과물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와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바이러스 감염사태에서의 적절한 대응 모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융합 Seminar

□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안내

한국포스트휴먼학회(경남대 정원섭 교수)는 2020년 7월 17일(금) 13시부터 17시 40분까지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유튜브채널 "한국포스트휴먼학회"를 통해 진행되며 '인간의 편향에 맞춘 개인의 역할과 인공지능의 편향(인천대 정성훈)', '인공지능의 차별원화와 공정성 제고(광주과학기술원 김건우)', '뉴스기사의 정치적 편향성 탐지 기법(국민대 강승식)', '보건의료에서의 AI와 Bias(국립암센터 장운정)', '인공지능 편향의 비즈니스적 함의와 회피방안(한국IBM 이상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